

푸른숲선도원 상호 교류를 위한

중국 교사 초청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도 가까이 닿아 있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교육 관계자와 교사들은 푸른숲선도원 상호교류를 협의하고,
한국의 푸른숲선도원 활동을 둘러보았습니다.
방문단의 3박 4일 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 최** - (사)한그루녹색회
후 원 - 산림청, 유한킴벌리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요일) ~ 24일(목요일), 3박 4일
장 소 - 푸른숲선도원의 숲(단체의 숲), 학교숲, 서울숲 등
방 문 단 - 중국 연변 지역 교사 및 교육국 직원 5명
 마혁신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부국장)
 신춘선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국 과 원)
 리창수 (중국 길림성 훈춘시 교육국 부국장)
 정상진 (중국 길림성 도문시 교육국 부국장)
 려송월 (중국 길림성 화룡시 신동소학교 교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 환영만찬

일정은 푸른숲선도원 교류를 위해 바다를 건너 온 중국교사를 환영하는 만찬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첫 만남의 자리였습니다.



“한·중 푸른숲선도원의 교류가 시작되다”

- 푸른숲선도원 간담회

국립산림과학원 제 2컨퍼런스룸에서 푸른숲선도원 교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길본 산림청 산림이용본부장, 이규태 산림휴양정책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마혁신 연변교육국 부국장은 올 8월에 연변에서 진행될 푸른숲선도원 해외 여름학교로 중국을 방문하는 푸른숲선도원 및 지도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시 속 휴식공간, 도시숲 속으로” - 서울숲 탐방

시민들의 힘으로 일구어낸 도시숲의 대표 모델인 ‘서울숲’을 방문했습니다. 서울숲의 생태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알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 수락초등학교 푸른숲선도원과 함께”

- ‘학교숲’ 견학

2007.5.23 10:00~12:00



서울수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한국의 초등학교 교실도 둘러보고 학교숲도 견학했습니다. 숲길과 생태연못 등 잘 가꾸어진 학교숲에서 공부하고 뛰어놀던 푸른숲선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했습니다.

“쓰레기 위에 세워진 공원을 거닐다”

- 하늘공원 탐방

2007.5.23 15:00~17:00



오후에는 난지도 ‘하늘공원’을 탐방했습니다. 쓰레기장 위에 만들어진 공원의 특징과 설립 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중국 방문단은 무척 흥미있게 들었습니다.

“숲을 공부하는 교사들과 함께”

- ‘단체의 숲’ 견학

2007.5.24(목) 10:00~12:00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그루녹색회 단체의 숲을 견학했습니다. 이날 진행한 푸른숲선도원 지도교사 대상 숲교육 전문가 과정에 참여하여 숲교육 방법과 숲생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배우고, 한국의 교사들과 친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푸른숲선도원 여름학교로 중국에서 다시 만나요

푸른숲선도원들은 2007년 8월 7일(화)부터 8월 12일(일)까지의 5박 6일 동안 푸른숲선도원 여름학교를 통해 중국 연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변조선족 학교 캠프, 환경콘서트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백두산 자연생태 탐방도 하고 백두산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캠페인도 전개할 것입니다. 중국 청소년들과 함께 중국에서 만날 날이 기대됩니다.